



소리로 시를 빛는 '음악 시인'

지난 1월 바흐를 양손 가득 들고 나온 최희연의 첫인사를 받기 위해 금호 갤러리에 모인 청중의 궁금증은 과연 '얼마나 잘할 것인가'였다. 귀국 직후인 1999년 6월 최연소로 서울대 음대 교수로 채용되어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의 연주를 확인하고픈 이들 앞에 최희연은 프로그램 전체를 하나로 잇는 빈틈없는 짜임새의 바흐를 풀어놓았고, 이어 2월 통영국제음악제 연주와 부친·창원시향과의 협연 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나갔다.

긍정적인 평가와 그로 말미암아 더욱 커진 궁금증 속에서 11월 6일 두 번째로 가진 독주회 메뉴는 슈베르트와 쇼팽이었다. 슈베르트 때문이었을까? 유난히 무대가 어두웠다. 무대와 객석의 조명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어두운, 침침하기까지 한 분위기에서 듣는 슈베르트. 적어도 눈부신 무대와 칠후 같은 어둠의 객석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맛보기 힘든 색다른 경험이었다.

“정말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성공이네요, 연출한 거였는데... 흠 자체가 워낙 차가운 느낌이라서 객석 쪽으로 빛을 쬐서 따뜻한 느낌이 들게 했어요. 특히 슈베르트는 무대가 밝지 않아야 하거든요. 쇼팽 '12개의 연습곡 Op.25'는 저 자신을 체찍질하는 의미예요. 첫음과 끝음의 연결, 조성 관계 등 연관성을 부각시켜 한 편의 시로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즉흥곡 D90과 소나타 D960은 섬세한 최희연의 연주와 잘 맞아떨어졌다. 홀 자체가 울림이 극히 적고 건조한 편이라 '따뜻함'을 발산하려는 의도에 부합하진 못했지만, 그가 표출하려는 서정성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반면, 쇼팽 에튀드는 스테미나 부족으로 인한 흐릿한 음색이 간간히 고개를 들어 흐름을 끊었다.

“늘 이맘때면 악보를 꺼내 치곤 하던 곡이 슈베르트 소나타예요. 작품 속의 여러 선율들, 그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엄격한 구조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치려면 한없이 쉬워지지만, 특성을 제대로 표현해 내려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난해해요. 이번 연주에서는 누가 들어도 단번에 슈베르트임을 알 수 있게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음악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아직은 젊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자신을 맡기고 표류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렇다고 무작정 떠밀려 가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그가 다잡은 방향키는 현대음악 연주와 작곡가별 사이클 연주, 언어와 음악의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이다.